

## 치아교정, 자신감과 함께 밝은 성격 만들어준다

기사입력 2012-06-07 09:52



[김지일 기자] 최근 그룹 에프엑스 설리의 치아교정 전후 사진이 큰 화제를 모은 가운데 치아교정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설리는 그룹 에프엑스로 데뷔하기 전에 치아교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형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뽐내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설리의 치아교정 결과에 대해 치의학박사 김준헌 원장(화이트스타일치과)은 “치아교정은 자신감은 물론 적극적이고 밝은 성격을 갖게 해줍니다. 치아교정 후에는 얼굴의 모습이 아름답게 바뀝니다. 수술을 동반한 치료를 받는 경우 긴 아래턱이나 무턱 등의 얼굴모습을 고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희고 가지런한 치아는 단정한 이미지를 만들어 준다. 첫인상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이다. 반대로 이 목구비가 아무리 뚜렷해도 치아가 부실해보이거나 들쭉날쭉하면 결코 좋은 인상을 주기는 힘들다. 비뚤어진 치아나 돌출된 앞니 역시 마찬가지다.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치아교정을 통해 바르게 고쳐주는 것이 좋다.

치아교정치료는 치아와 턱의 위치가 맞지 않을 때 이를 진단하고 치료하는 치과의 한 분야이다. 치아가 잘 맞물리지 않는 상태를 '부정교합'이라고 한다. 이 경우에 교정장치, 헤드 기어 등 기능성 장치를 통해 치아와 턱을 올바른 위치로 맞추어 주게 된다. 치열이 불규칙하게 나는 것을 교정장치로

다시 배열하여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예방 및 치료술 또한 교정치료이다.

치아는 일정기간 뿌리를 압박하면 그곳의 뼈가 흡수되고 반대편 뼈는 새로운 뼈가 생기게 된다. 이것이 치아교정의 원리이다. 보통 턱뼈를 바위처럼 단단한 고체로 생각하지만 사실 자랄 때에는 진흙과 같이 물렁한 상태라고 한다. 이때 턱뼈에 압력을 가하면 턱뼈를 늘릴 수 있는 것이다.

턱뼈를 잡아당기면 당기는 방향으로 자라나게 된다. 또 밀게 되면 뒤로 들어가게 된다. 중요한 사실은 교정장치를 하면 턱뼈의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다. 치아도 마찬가지로 미는 힘을 가하면 움직이게 된다.

교정장치는 마치 철로에 해당하는 '브라켓'을 치아표면에 부착하고 기차에 해당하는 교정용 철사줄로 조이고 고무줄을 이용해서 치아를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움직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화이트스타일치과 김준헌 원장(치의학 박사)은 "치아교정은 구강기능을 향상시켜줍니다. 가지런한 치열과 기능적인 교합은 음식물을 잘 씹을 수 있게 해주고 명확하지 않은 발음을 개선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치아조직이 건강해져서 충치와 치주질환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불규칙한 치아 배열에서 볼 수 있는 불필요한 치아의 마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칫솔질을 가능하게 해주기 때문에 구강위생관리에도 많은 도움을 줍니다"라고 치아교정의 장점을 설명한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life@wstarnews.com

- ▶ **“환절기 실종사건!” 이제는 섬머룩을 준비할 때**
- ▶ **카카오 '보이스톡' 개시... 이동통신 3사 “이대로 괜찮은가”**
- ▶ **★들의 파격적인 시상식 패션 일상복으로 입기**
- ▶ **국가장학금 신청 시작... 평균 '22% 이상' 등록금 경감**
- ▶ **[스타일 FLY] '훈남, 훈녀'로 만들어 주는 야구장 패션**

Copyright © 한국경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POD&mid=etc&oid=015&aid=0002702033>

---